

원자력연료

KNF MAGAZINE

2024

VOL.171

JANUARY + FEBRUARY


Turning Point



INTRO

Turning Point





새로운 해는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시간의 흐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변화를 향한 하나의 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해

어떤 걸음을 내딛든, 어떤 변화를 마주하든
자신을 믿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용기가 '인생의 전환점'을 가져다 줄 겁니다.

KNF MAGAZINE

원자력연료

#

2024
VOL.171

JANUARY + FEBRUARY

TURNING POINT



발행일

2024년 2월 23일

발행처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242(덕진동)

발행인

최익수

편집실

소통협력실 042-868-1135

기획·디자인·제작

경성문화사 02-786-2999

<원자력연료>는 <https://www.knfc.co.kr>의 E-Book과 App-Book '사보 원자력연료'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빛나는 KNF

06 신년사

08 새해 연하장

10 요즘, KNF는

14 클릭! 인사이트
2024년 확대되는 수출 지원
춤추게지는 안전 체계

18 안전 알람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2 KNF 사람들
노심설계처 여직원 6인의
'금괴 모양' 회상시에
만들기 대작전

살맛나는 KNF

28 즐거운 심표
'여행'의 다른 이름은 '행복'이다
충남 당진

34 지금은 뉴노멀 시대
저출산 해법으로 떠오른
'라떼파파'
아빠육아 전성시대

38 그때 그랬지
세기말을 뒤흔든 '웃픈 해프닝'

40 문화의 발견
새로운 시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때

42 문학의 속삭임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필생의 가르침
『하워드의 선물』

44 해시태그 이벤트

46 독자 마당

CONTENTS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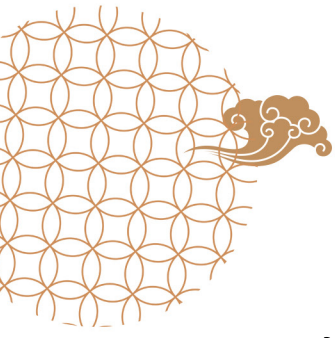


22



28





한전원자력연료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기차고, 행복하고, 희망이 넘치는 풍요로운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오늘 KNF인상’ 및 ‘청렴인상’을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는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전 임직원의 노력으로 4년 연속 정부 경영실적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과거 3·4등급에 머물렀던 청렴도가 매년 상승해 2022년에는 청렴도 우수 기관에 선정됐고, 지난해 12월에는 종합 청렴도 1등급 달성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이는 제 임기 중 가장 정성을 들인 청렴도 분야에서 마침내 최고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사택 리모델링 공사의 준공 및 입주, 웨스팅하우스 사(社) 튜브 수출, 제3공장 증설, 국가산업대상 품질혁신 부문 대상 수상, 충남대학교 디지털공학 석사학위과정 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를 위해 함께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과 노동조합 위원장님 및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에도 단결된 모습으로 발맞춰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화가 일상화된 오늘날,

우리 한전원자력연료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실현하고자 다음 다섯 가지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혁신과 지속 성장 경영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후변화 및 에너지 가격 변동 폭 확대와 한전의 적자 지속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선진 핵 주기 산업 체계 및 경영진단을 통해 주기 사업 확장 및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 또한 청렴한 조직 문화의 체질화와 성과 창출을 통한 지속 성장 경영의 강화는 물론, 경영평가 및 청렴도 등 각종 정부 평가에서 안정적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둘째, 미래형 혁신공장 구축 및 융합형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미래형 혁신공장 구축을 위해 고유 기반 기술 개발 및 검증을 통한 상용 설비 제작과 인허가를 단계별로 원활하게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원자력연료 시장을 선도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 석사과정으로 개설된 디지털 전환을 위한 DNA(Data, Network, AI) 분야의 인재 양성 교육을 비롯해 미래형 혁신공장 운영에 적합한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초격차 미래 기술 개발로 K-Taxonomy를 선도해야 합니다.

기술 개발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은 차세대 원전 시장 선점을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고, 특히 SMR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해법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전원자력연료는 혁신형 SMR 연료 및 원전 산업 초격차 기술 개발 등 미래 사업 기술 개발 확대와 사고저항성 핵연료 개발을 통해 K-Taxonomy를 선도해 나갑니다.

넷째, 해외 사업 및 환경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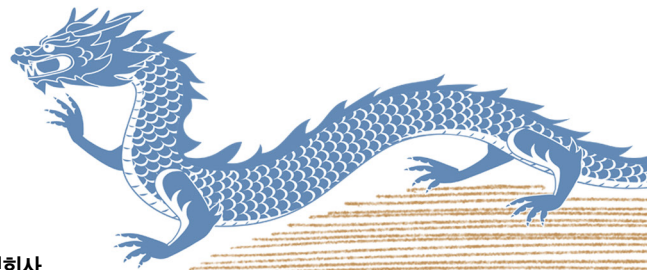
정부의 원자력 수출 진흥 정책에 적극 발맞춰 올해에는 해외 신규 원전 사업의 가시적 성과와 부품·용역 수출 100억 원을 달성하고, UAE 연료공장 건설 및 운영 사업 수주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고강도 집속 초음파 제어 설비의 해외 시장 판로 확대 및 방폐물 처리 기술 개발 등 환경보전 사업에서 국내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품질과 안전문화 선진화를 추진해 나갑니다.

원자력 분야에서 품질은 곧 생명입니다. 품질보증시스템 신뢰도 향상을 통해 원자력품질관리시스템(ISO19443) 인증 취득을 추진해 유럽 및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 기반을 확보해 나갑니다. 아울러 안전한 제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의식 개선 등 안전문화 정착과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혁신을 이룬다면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한 혁신은 노동조합의 협력이 있어야 이뤄 나갈 수 있기에, 노동조합과 소통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노조위원장님과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4년에는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 성취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사장 **최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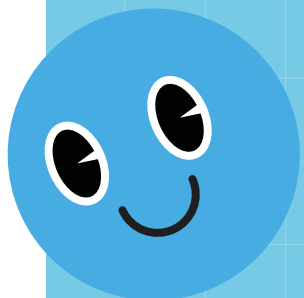
새해 연하장

2024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 한해 복된 일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료, 선후배들이 전해온 신년 인사와 덕담을 전합니다.

“
‘하고 싶은 일보다 꼭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KNF 직원들 모두가 업무 및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것들을 조기 달성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신민철(연료기술부)



“
2024년 갑진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서로 따스한 말로 값진 2024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마운한(시설운영부)



“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갑진년을 맞아 값진 하루하루로 채워지는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
”

이희건(조직예산부)

“
덕담 대상자
김민경 청년인턴(품질검증부)
밝은 미소와 긍정에너지로 늘 부서를 빛내주는 민경씨! 지난 한 해 많은 도움 고맙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고 취업에도 좋은 결과 있길 기도합니다! 파이팅!
”

홍나리(품질검증부)

“
2024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며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함께 열심히 달려보아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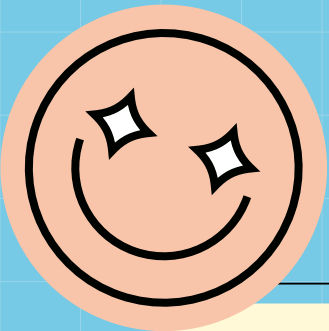
홍송지(ESG소통부)

“
2024년 푸른 용의 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작년보다 더 행복하고 좋은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이기연(성과관리부)

“
덕담 대상자
신규 직원
입사하고 적응하며 배우는 데 힘들었을 2023년을 뒤로하고, 2024년은 좀 더 재밌는 일만 가득하고 행복한 생각만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빌게요!
”

박종화(구매부)



“ 청룡의 기운을 받아 2024년 KNF 가족들 아자아자 파이팅! 다들 만사형통하시길 기원합니다^_^ ”

이진민(노사협력부)

“ 청룡의 해, 다들 여의주를 갖고 승천하는 한 해 되길 바랍니다! 뜻하는 바 모두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

임진아(ESG소통부)



덕담 대상자 박종화(구매부)

2024년 갑진년은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청룡의 기운을 가득 담아 소망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떠나 보내며 안 좋았던 기억들은 지워버리고, 행복했던 기억들만 가슴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김순호(재변환부)



“

덕담 대상자 김순호(재변환부)

2023년 한 해 동안 밝고 성실한 에너지를 넘치도록 나눠줘 감사합니다. 2024년 갑진년은 어느 해보다 값진 한 해가 되길, 그리고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저의 마음을 담아 장미 한 송이 두고 가겠습니다.(총총)@>>--

조영욱(과도해석부)

”

“

2024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작년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올 한해에는 다 이루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

이종범(연료서비스부)

“

2024년도에는 이전보다 좀 더 행복하고 원하는 것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수민(ESG소통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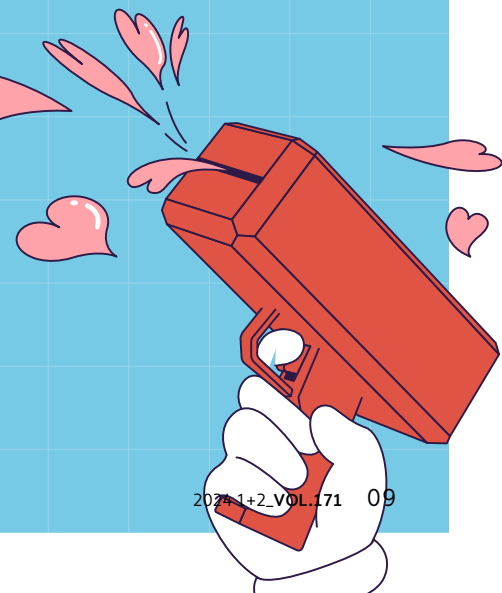
”

“

2024년 새해에도 모두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하길 바라며, 함께 일하고 더 큰 성장과 성취가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상걸(사용후연료부)

”



빛나는 KNF
+
요즘, KNF는

NEWS

2024
Vol.171



January + February

2023년 종합 청렴도 평가 1등급 달성

우리 회사는 12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청렴도 1등급을 획득했다. 우리 회사는 2021년과 2022년에 종합 청렴도 평가 2등급으로 상위 등급을 달성했으며, 올해 평가에서는 1등급으로 상승하며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올해 종합 청렴도 평가 대상인 192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만이 1등급을 달성했으며, 우리 회사가 1등급 기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또한 같은 평가군인 공직유관단체Ⅲ 45개 기관 중에서는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다.

우리 회사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부패 취약 분야 개선 ▲청렴의식 내재화 ▲반부패 시스템 고도화 등 3대 전략과 9개 세부 추진 과제로 이뤄진 반부패-청렴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렴 우수 기업 도약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했다. 특히 최익수 사장의 주도로 관리자의 청렴 리더십을 강조하며, 2년째 관리자 청렴 리더십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사내 소통 채널인 청렴 에이전트를 중심으로 CEO와 직원 간, 계층 간, 세대 간 소통간담회를 통해 청렴의식 확산 활동을 확대해 나가는 등 다양한 청렴문화 활동을 시행했다.

최익수 사장은 "전 임직원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한 덕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소통하는 기업문화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최고 등급 획득

우리 회사는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 등급인 레벨5(Lv.5)를 획득했다. 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꾸준한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기업과 공공기관을 발굴해 지역사회가 그 공로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ESG 경영과 연계한 사회공헌 추진 실적과 성과가 복합적으로 평가되며, 우리 회사는 본 제도가 신설된 2019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선정됐다.

우리 회사는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에너지피아 봉사단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수해 현장 피해 복구 봉사, 국립대전현충원 결연모역 환경 정화 활동, 사랑의 헌혈 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또한 사회공헌기금인 에너지피아펀드를 조성해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에 매월 정기 후원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과 공공이 협업하는 장터 'Ready, 가치 Flex' 참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푸르미 그린스쿨' 조성 ▲대전지역문제해결플랫폼 의제 '장애인 보호자 심리 치유 숲 케어 프로그램' 등 민간·공공 영역과 협업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최익수 사장은 "5년 연속 우리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공헌 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상생하고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 실천

우리 회사는 2월 5일, 설 명절을 맞아 노사 합동으로 회사 인근에 소재한 유성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시설 네 곳을 찾아 과일 및 온누리상품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품은 온누리상품권과 송강전통시장 및 관평동 소재의 자매마을 농가에서 구입한 과일로, 각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지역 내 취약한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 회사는 이 외에도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자매마을 후원, 취약계층 및 지역아동 후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 2023년 11월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정창진 경영관리본부장은 "이번 설 명절맞이 이웃사랑 나눔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취약계층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행하며 상생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변함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겨울철 ‘연탄 나눔 봉사활동’ 진행

우리 회사는 12월 28일 오후, 연말을 맞아 대전시 내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임직원이 함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연탄 배달 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에너지 취약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 생활안정 도모와 더불어 임직원의 나눔의식 확산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진행됐다. 이날 최익수 사장을 포함해 임직원 자원봉사자 약 35명은 대덕구 대화동 일대 5가구에 연탄을 배달했고, 대전연탄은행에 연탄 5,000장을 기부했다.

최익수 사장은 “임직원이 뜻을 모아 실천한 따뜻한 나눔과 이웃사랑이 겨울철 어려움을 겪는 이웃분들에게 도움을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나눔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회사는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연말에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KNF 사랑의 김장 나눔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월동 용품 및 연료비 지원 ▲전 직원 참여 헌혈증 기부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2024년 확대되는 수출 지원

새 정부가 들어서며 원자력 산업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원자력이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에너지원임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규제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원자력계에 다양한 이슈들이 예고돼 있다. 푸른 용의 해인 2024년 갑진년(甲辰年)에 원자력 산업에 훈풍이 불지 기대된다.

글 전력문화사 이재용 기자





츰츰해지는 안전 체계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 주제,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합니다’



정부의 원전 산업 관련 적극 행정 예고

지난 1월 11일 원자력계 산·학·연·관 인사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가 주관한 ‘2024 원자력계 신년인사회’가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강남에서 ‘기후위기 극복의 길, 원자력이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원자력 산업과 관련한 정책 주무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동시에 참석해 시선을 모았다. 또 원전 안전 관련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해 대표 연구기관인 원자력연구원 임직원 등 220여 명이 모였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후변화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 해소를 위한 원자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위해 2028년까지 혁신형 SMR(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사업에 4,0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원자력 분야 R&D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목표했던 10기 중 7기의 계속 운전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일감을 공급한 결과 국내 원전 생태계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해외 원전 수출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원전 산업의 질적 고도화 및 기업들의 투자와 기술 개발, 고용 확대를 통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적으로도 기자재 계약 즉시 선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보증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 원전 기업을 위한 유동성 공급도 정부 주도하에 대폭 확대해 중소·중견기업들을 더욱 츰츰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올해 행사에 원자력 관련 정부 주무처인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장관이 나란히 참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원자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관심과 기대가 큰 것을 반증한다고 입을 모았다.

SMR 연구 개발·원전 생태계 복원에 정책 힘 실려

정부는 올해 원전 생태계에 3조 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하고 공급된 일감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신한울 3·4호기 '선금 특례' 등 특별 조치를 본격 시행한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신설된 산업은행의 특별금융지원(2년간 연 1,000억 원 규모)에 더해 올해 정부 예산으로 1,000억 원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기업들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SMR 등 차세대 유망기술 중심의 연구 개발(R&D) 투자도 추진한다.

'조세특례제한법령'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원자력 기술'의 범위를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한편, 지역 원전 기업들의 원활한 투자를 위한 지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SMR 개발 사업에 전년 대비 8배 가까이 늘어난 607억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 SMR 혁신 제조 기술 확보와 기자재 업체의 SMR 제작 역량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올해 원전 생태계 경쟁력 향상의 성과가 구체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지도록 대형 원전뿐 아니라 원전 설비 등으로 수출을 다각화하는 등 원전의 신(新)수출 산업화 목표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는 보다 '촘촘' 안전은 보다 '강화'

원자력 및 방사선 관련 안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올해 달라지는 정책을 내놨다. 먼저 원전 사업자의 정기 정비 기간에만 실시해 왔던 원전 정기 검사를 올해부터 발전소 가동 중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상시 검사로 개편한다. 원전 정기 검사는 사업자의 정기 정비 기간에 한정돼 실시됨에 따라 규제기관은 충분한 검사 기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사업자도 단기간에 집중된 수검으로 면밀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원전의 이상 징후나 취약점에 대한 사전 인지와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었다. 법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새울 2호기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보완 과정을 거친 후 원전에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원전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따른 방사능 감시 및 대응 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처리 현황을 일일 업무보고로 브리핑해 국민 영향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국내 해역 방사능 감시 조사 정점을 기존 73개소에서 78개소로 확대하고 일본 활어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311대에서 760대까지 대폭 확대된다. 또 국내 원자력 시설의 방사능 누출 사고에 대비해 환경방사선감시기를 기존 238대에서 244대까지 확대 설치한다.

이와 함께 방사선 이용 기관의 방사선 안전문화 정착과 강화를 위해 '맞춤형 컨설팅'도 확대 지원된다. 방사선 이용 기관은 2019년 8,719개에서 지난해에는 9,961개로 크게 늘어났다. 방사선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 방사선 안전에 대한 이해와 방사선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올해는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021년 4억 원이 편성됐던 점을 비교해 본다면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셈이다. 임승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장은 "원안위는 안전 현안에 대한 규제 방향을 먼저 제시하는 등 안전성 확인 과정에서 문제점을 적극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NF**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우리 회사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방사선 기술의 발전으로 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하는 기관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



빛나는 KNF
+
안전 알림이



◦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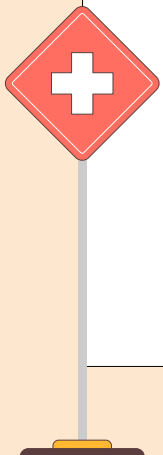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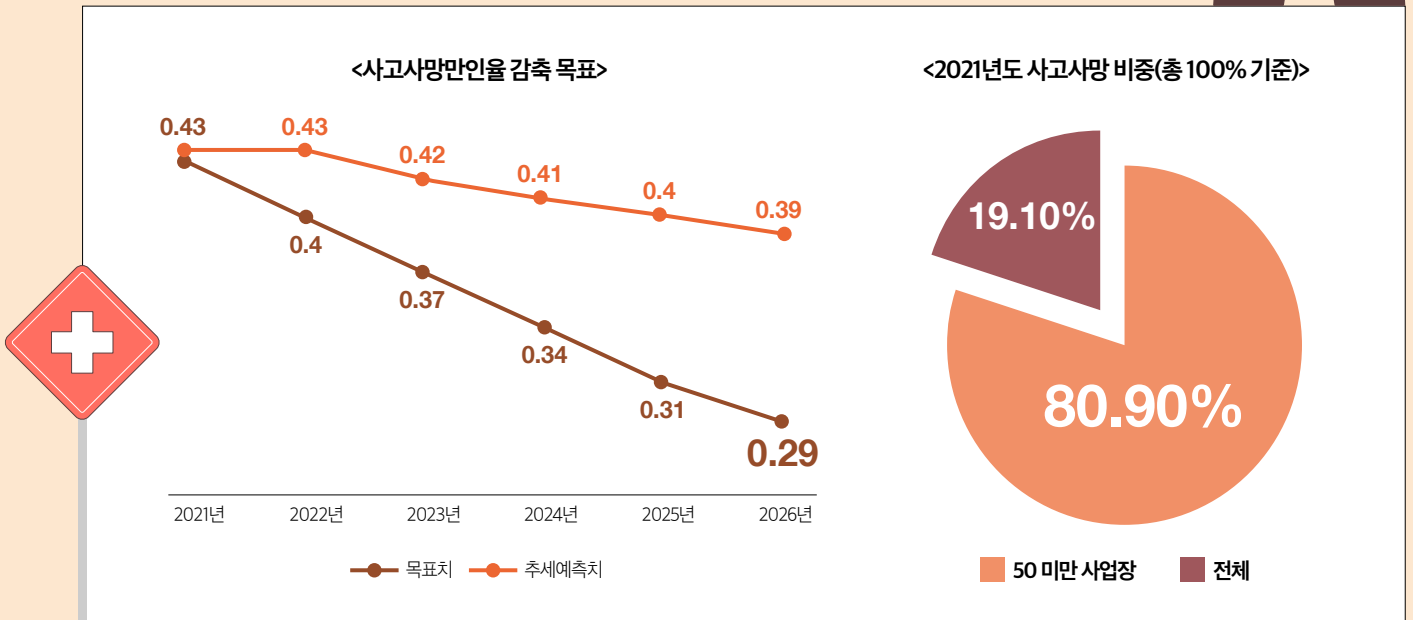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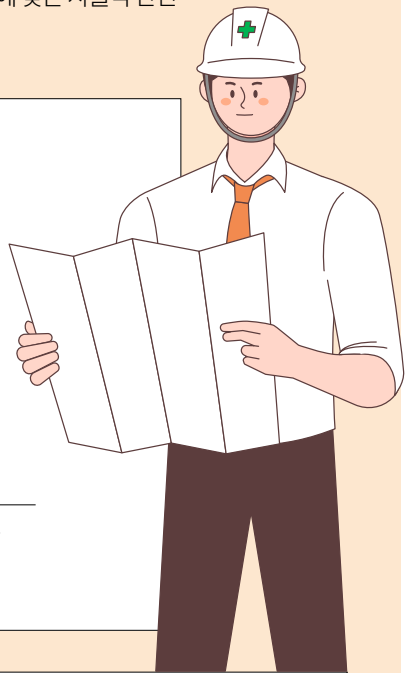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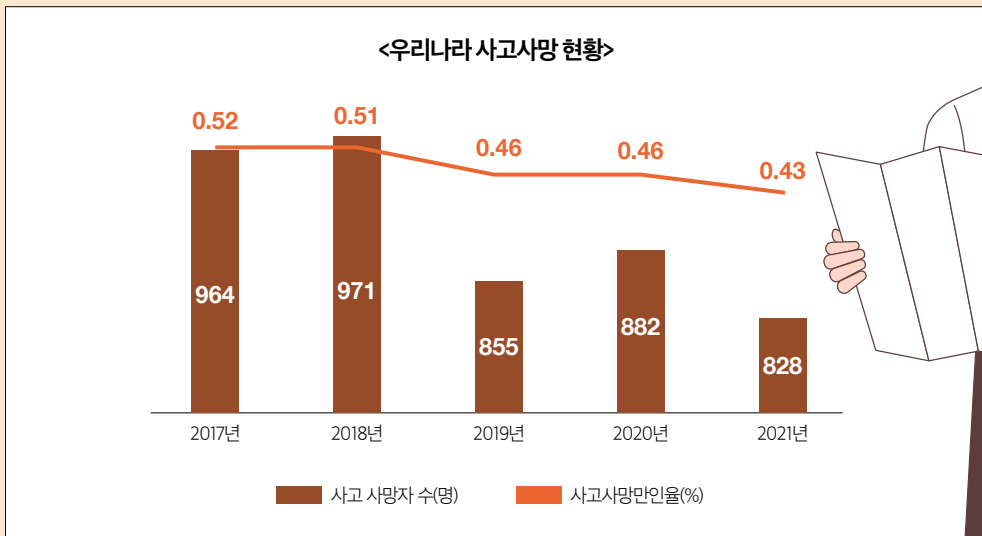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新정부 국정과제의 수행과
사고사망만인율의 감축(2026년, 0.29% 목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시행 2년을 맞아, 로드맵의 주요 사항을 다시 한번 숙지하고 변화하는 KNF의 안전을 알아보자.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규제와 처벌에 방점을 둔 정책 방향을 자율과 예방 중심으로 산업 안전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중대재해 감축에 범국가적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도입된 로드맵
- 매년 800명 이상의 사고 사망 발생, 사고사망만인율은 0.4~0.5 수준(03~21년 기준)으로 정체. 더불어 (03~21년) 기간 내 안전 5개년 계획,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하청 사업장, 건설 제조업 위주의 산업에서는 여전히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 다발
- '26년 사고사망만인의 목표(0.29) 설정을 통한 산업안전 정체가 개선 및 기업·산업 특성에 맞는 자율적 안전 관리 역량 형성을 위해 도입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 방향

추진 목표 : 현재의 처벌·감독에서 자율·주도적 방어의 '23~26년'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규칙을 따른다”



본능 중심의 안전 준수
→ 처벌·감독을 통한
사고사망만인을 감축 노력(~21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규칙을 따른다”
(Self-regulation)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면서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변화('23년~)

추진 내역

①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확립

-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평가 개편
- 자기 규율 예방 체계 뒷받침을 위한 감독 행정, 법령 기준, 정비

②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지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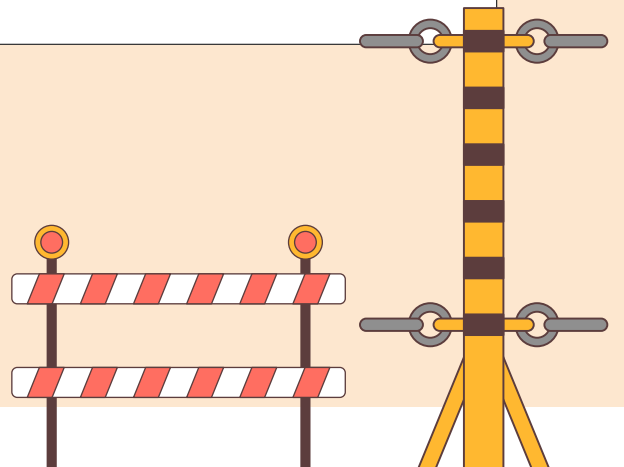
- 50인 미만 중소기업 집중 지원
- 스마트 기술·정비 중점 지원
- 8대 요인 현장 중심 특별 관리
- 원하청 상생협력 강화
- 산업 구조 및 기후변화 대비

③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 근로자의 안전보건 책임과 참여 강화
- 안전문화 캠페인 확산(중앙→지역→업종)
- 현장 중심 안전보건 교육 강화

④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 전문 기관 연계 협업
- 응급의료 비상 상황 대응 체계
- 중앙→지역 협업 거버넌스



KNF 그리고 「자기 규율 예방 체계」

KNF 또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이행을 통해 평상시 노사가 함께 스스로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며, 중대재해 발생 시 결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 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단계적 정착화 추진
(정기·상시·수시)



현장 공유의 핵심 수단으로 TBM 활용

위험성평가 기반의 TBM 실시를 통해
근로자에 유해위험요인 공유와 안전수칙 주지



3대 사고 유형 8대 요인 특별 관리

안전패트를 수시 순찰 운영 및
K-사다리 지원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안전관리 역량 집중 지원

함께하는 안전동행 실시로 위험성평가 컨설팅 지원,
협력업체 안전점검 지원



수제 디저트 드려요
 인스타에 업로드후 썬베
 크 계정으로 사랑태그하기
 스토리 추가후 언급하기
 썬베이크
 대전 베이킹 클래스
 월데이 클래스 ♡

빛나는 KNF
 +
 KNF 사람들



노심설계처 여직원 6인의



‘금괴 모양’ 휘낭시에 만들기 대작전

노심설계처는 에너지를 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노심 장전 모형을 선정하고 노심을 해석하는 일을 한다.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설계 분야인 만큼 꼼꼼함이 중요한 업무. ‘한 꼼꼼’하는 직원 6인이 ‘한 세심’해야 한다는 휘낭시에 만들기에 도전했다.

글. 박예나 사진. 고인순



같은 처(處)로 이어진 인연, '빵사랑' 연대로 더욱 단단하게!

매서운 한파가 불어닥친 날이었다. 북서쪽에서 밀려 내려온 찬 공기가 서해의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며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는 폭설이 쏟아졌다. 한껏 여민 옷차림과 다르게 해사한 표정을 지은 여성 여섯 명이 오늘 원데이 클래스가 열릴 공간의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저마다 취향에 맞게 앞치마를 골라 둘러맨 뒤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 아담한 규모에, 아기자기하게 장식된 공간을 둘러보며 얼굴에는 점차 기대가 차올랐다. 오늘 모인 여섯 사람은 '빵사랑'이라는 하나 된 마음과 60여 명이 근무하는 노심설계처 내 소수의 여성 직원이라는 공감대로 뭉쳤다. 이연화 선

임 연구원은 "본래 한 명이 더 있어 처(處) 내 여성 직원은 총 7명이지만, 오늘은 업무가 있어 참여하지 못했다"라며 함께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운지, 혹은 '그대를 잊지 않았노라' 마음을 전하고 싶었던지 여섯 명이 된 사연을 살짝 귀띔했다.

'빵사랑'이 지극한 몇 사람은 시간을 내서 함께 '빵투어'를 다니기도 한다. 그 중심에는 서나연 연구원이 있는 듯했다. 시원한 웃음과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말할 거는 모습만 보아도 활동적인 기운이 넘쳐흐르던 그녀는 오늘 여섯 사람을 한데 모은 주역이기도 했다. 심지어 여섯 명이 다 같이 모이는 건 처음이라고.



**오늘 모인 여섯 사람은 ‘빵사랑’이라는 하나 된 마음과
노심설계처 내 소수의 여성 직원이라는 공감대로 뭉쳤다.**



“처음에는 다소 망설여졌는데요, 그래도 함께 해보자고 연락해 준 후배에게 고마운 마음이 들어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연화 선임 연구원의 말에 전해영 책임 연구원도 한 마디 덧붙였다. “집에서 베이킹을 해보려고 하면 준비하는 과정부터 치우는 일까지 번거로운 요소가 많아 엄두가 나지 않는데, 서나연 연구원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겨 정말 기대됩니다.”

돈을 부르는 풍습 ‘휘낭시에’를 만나다

빵덕후들이 ‘휘낭시에 만들기’ 클래스가 열린다는 소문을 듣고 재빠르게 신청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을 것이다. 휘낭시에는 프랑스어로 금융가를 의미하는 ‘피낭시에(financier)’에서 유래된 말로, 파리 주식거래소에서 새해마다 딜러들끼리 선물을 나누는 풍습이 있던 때 근처 빵집에서 ‘곰과’ 모양의 빵을 만들어 판 데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 때문에 휘낭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고급 디저트’로 소문나 있다. 이런 고급 디저트를 직접 만들어 보고 먹을 수도 있으니, 빵덕후들에겐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였을 터.

수업 시작을 위해 직사각형 테이블의 기다란 면으로 세 명씩 양분해 섰다. 선생님은 한 명 한 명의 자리 앞으로 준비물을 나눠준 뒤 버터가 잔뜩 담긴 냄비를 끓이는 것에서부터 시작

했다. 한 냄비당 세 사람의 베이킹에 쓰일 버터가 담겨 있었고, 끓이는 동안 내내 저어줘야 해서 수고스러운 일이라는 듯 서로 하겠다며 주걱이 이리저리 오갔다. 버터가 끓어오르자 공간 한가득 달달한 향이 채워지며 모두의 표정이 한결 더 부드러워졌다. 5분가량이 지나자 녹은 버터는 서서히 색이 어두워졌는데, 갈색빛이 날 때까지 끓여주면 빵의 풍미가 더욱 좋아진다고 한다.

갈색빛이 나면 그릇으로 옮겨 찬물에 약간 식힌다. 그동안 각자 앞에 놓인 볼(bowl)에 계란 흰자와 밀가루, 아몬드가루 등을 넣고 휘핑기(거품기)로 섞어 반죽을 만들어 준다. 다른 도구가 아닌 휘핑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거품을 내야 휘낭시에에 볼륨이 생기기 때문. 그렇지만 너무 거품이 많이 나서도, 너무 적게 나서도 안 되기 때문에 ‘적당한 힘과 속도’로 젓는 것이 관건이다. 이때 베이킹 유경험자들의 실력이 빛을 발했다. 특히 선물용으로 이따금 쿠키를 만들곤 했다는 배규리 연구원의 매끄러운 손놀림은 선생님의 시선마저 사로잡았다.

‘나만의 적당함’을 찾아가는 과정

클래스를 위해 모이기 전날, 선생님의 간단한 요청이 있었다. 바로 만들고 싶은 휘낭시에의 맛을 골라 알려달라는 것. 총





7MANOIER



9개의 맛 중 입맛에 따라 클래식, 황치즈, 얼그레이, 단호박썩크럼블, 베리크림치즈로 골랐다. 그리고 각각의 맛을 낼 핵심 재료는 볼에 함께 넣어 섞었다. 그 때문에 섞인 후 투명한 볼을 통해 드러나는 반죽의 색감은 제각각이었다.

“간식이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아이들을 위한 맛을 떠올렸다가, 모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고르자는 생각이 번뜩 들어 얼그레이로 골랐어요!” 전해영 책임 연구원이 장난스럽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이제 약간 식은 액상 버터를 넣어줄 차례. 직원들이 열심히 거품을 내는 동안 선생님이 버터를 여섯 등분해 나눠줬다. 버터는 세 번에 나눠 반죽에 섞어 주는데, 너무 천천히 저으면 버터가 식어 굳으며 잘 섞이지 않아서 (또 다시) ‘적당한 타이밍’에 버터를 넣고 ‘적당한 힘과 속도’로 저어야 했다. 휘낭시에는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진 않지만 섬세함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편. 그 때문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사랑받는 클래스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섬세함과 집중력이 요구되는 순간은 반죽을 찰주머니에 담아 틀에 짜는 순서! 이때 지금까지의 ‘적당한 힘과 속도’ 차이가 오롯이 드러나는데, 어떤 반죽은 되직하고 어떤 반죽은 다소 묽었다. 그럼에도 느끼는 재미에는 큰 차이가 없다. 결국 빵의 모양을 결정짓는 ‘반죽을 틀에 짜는 행위’가 쉽게 해볼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클래스를 마친 뒤에도 다수가 “반죽을 틀에 맞춰 짜는 것이 가장 흥미로웠다”라고 얘기했다. 반면 서나연 연구원은 “잘못하면 모양을 망칠까 걱정이 되었던 반죽을 틀에 짜는 과정보다 간단해서 부담이 없었던 버터 끓이기가 가장 재밌었다”라고 소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토픽에 따라 더욱 다채로워지는 휘낭시에

마지막으로 저마다 고른 맛에 어울리는 토픽 재료를 골라 반죽에 얹는 작업을 했다. 이연화 선임 연구원은 ‘빵’을 향한 애정이 돋보일 정도로 수북하게 크럼블을 얹어, 굵기 전부터 휘낭시에가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배규리 연구원이 고른 베리크림치즈는 청 형태의 베리(딸기류)와 크림치즈를 작게 덩어리 내어 얹어야 하는 메뉴였는데, 마치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 듯한 작업이었다. 대체로 비교적 작은 크기의 토픽을 골라 완성된 휘낭시에의 모양새가 아기자기했다면, 박천순 연구원은 고심 끝에 큼직한 피칸을 골라 심플하면서도 눈에 띄는 휘낭시에를 탄생시켰다. 구워진 휘낭시에를 깨물었을 때 입안에 퍼질 피칸 향이 지레 상상돼 흐뭇해졌다.

휘낭시에를 굽는 데는 정확히 14분이 소요된다고 기다리는 동안 그간 나누지 못한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 서로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정겨웠다. 조유연 연구원은 “오늘 베이킹을 계기로 앞으로 이색적인 활동들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안을 했다. 당장은 마땅히 떠

오르는 것이 없다며 결국 '빵을 만드는 일'을 했으니 '빵을 먹으러가는 일'을 해보자고 의견이 모였지만 말이다. 서나연 연구원은 지난해 배구를 시작했다. 갓 시작한 사람보다는 오랫동안 해 온 것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긴 팔과 다리를 자랑하는 그녀였지만, 아직은 자랑할 만한 실력이 아니라며 수줍어했다. 더불어 얼떨결에 배구동호회 임원을 맡아 분주한 해를 보내며 다소 버겁기도 했다면서 올해는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박천순 연구원은 서 연구원의 배구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올해는 건강을 위해 운동해보려 한다"라고 맞장구쳤다.



Information

썬베이크 베이킹 클래스

위치: 대전 중구 동서대로1421번길 13

클래스 종류: 휘낭시에, 마들렌, 마카롱, 르뱅쿠키




휘낭시에의 깊은 풍미에 웃음꽃 만연, 만족도 200%

휘낭시에의 고소하고 달큰한 향이 진해지며 다 구워졌다는 신호를 보내 왔다. 한껏 노릇해지고 붓긋 부푼 휘낭시에가 모습을 드러내자 다들 환호성을 터뜨렸다. "역시 베이킹은 완성된 것을 볼 때 가장 즐겁다"라고 이연화 선임 연구원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한소끔 식히기 위해 선생님이 틀에서 꺼내 식힘망에 올려두자 모두 손에 손을 모아 가지런히 정렬했다. 구워지며 색상이 고만고만해진 것 같으면 서도 황금색으로 더욱 밝게 빛나는 황치즈를 보니 '금괴 모양 디저트'라는 휘낭시에의 뜻이 다시 한번 상기됐다. 다 시어갈 즈음 휘낭시에를 챙겨갈 고운 분홍색 박스를 하나씩 나눠 받았다. 각자 만든 휘낭시에를 챙겨갈 줄 알았으나 12개씩 만든 넉넉한 수량을 감안해 다양하게 섞어 가져가기로 결정했다. 흡사 종합선물과자세트처럼 담긴 모습을 보니 명절 선물을 앞당겨 받은 듯 마음이 푸근해졌다.

빵은 역시 갓 구워졌을 때 맛보는 것이 제맛. 예쁘게 옮겨담은 후 하나씩 골라 맛을 본다. 카페에서 파는 디저트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깊은 풍미와 결박속촉(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식감에 모두가 놀랐다. 휘낭시에의 바삭함은 약 이틀간만 유지되기 때문에, 지금 가장 맛있을 때라고 누군가 만들어 준 제품을 먹을 때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맛이었던 셈. 그렇기에 '빵덕후들'에게겐 더욱 뜻깊고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됐다.

지난해 입사한 배규리, 조유연 연구원은 "부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고 싶다. 선배님들께 배운 대로 착실히 해 나가겠다."라는 포부를 전했다. 앞으로도 여섯 사람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돈독한 선후배 사이를, 동시에 한숨 돌리며 위로와 즐거움을 나눌 빵연대를 이어가길 바란다. 



“동료들과 함께한 특별한 하루, 어떠셨나요?”



전혜영 책임 연구원

즐겁고 맛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같이
점심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조유연 연구원

베이킹이 처음이라
살짝 걱정했는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선배님들과 함께해
더 재미있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연화 선임 연구원

핵 설계 분야에 계신
다섯 분과 열수력 설계
분야에 있는 제 업무를
약간 달라서 대화할 기회가
많이 없는데요, 모처럼
그런 기회가 마련돼
즐거웠습니다.



배규리 연구원

사보에 실린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 참여를
잠깐 망설였었는데,
끝나고 나니 함께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회사 생활에
힘이 되는 관계로
지내고 싶습니다.



서나연 연구원

만드는 과정도 흥미롭고,
맛있게 만들어져서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기회로 선후배,
동료들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기쁩니다!



박천순 연구원

6명이 모이기 쉽지 않은데,
사보 코너 덕분에 이렇게
모여 특별한 경험을
함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살맛나는 KNT

+

즐거운 심포

당진은 고요하다. 햇플로 손꼽히는 동해의 일출 명소와 비교하면 당진 왜곡마을은 사뭇 진지한 분위기다. 한국의 산티아고라 불리는 솔미성지와 신리성지, 합덕성당이 새하얀 눈에 뒤덮였다. 발 도장을 찍듯 꾸욱꾸욱 눈길을 밟으며 걸음을 옮긴다. 걸으면서 치유와 위로를 경험하고 희망을 얻는다.

글 사진 임운석 여행작가

‘여행’의 다른 이름은
‘행복’이다

당진

Travel + Happiness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해상조형물 새빛왜목



당진 왜목마을은
저무는 해와 돋는 해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다.



독특한 지형 자랑하는 왜목마을

당진은 신라시대 당나라로 향하는 길목에 자리한 나루터였다. '당진(唐津)'이라는 이름도 그래서 붙었다. 백제고도 공주나 해변을 따라 볼거리와 먹거리가 많은 태안 등에 비해 관광지로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새해가 밝아오면 서해에서 해맞이를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곳 중 하나다.

당진 왜목마을은 저무는 해와 돋는 해를 모두 볼 수 있는 곳이다. 서해안에 자리했음에도 일출을 볼 수 있는 이유는 왜목마을의 지형이 곳처럼 특 튀어 나온 채로 남북으로 길게 뻗어 동쪽과 서쪽에 너른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이다. 마을의 이름 또한 마을의 지형이 왜가리의 목처럼 길어서 '왜목'이라 불린다. 이 마을에서 보는 일출은 동해의 일출과 그 느낌이 사뭇 다르다. 동해가 장엄하고 역동적이며 화려하다면 여기 일출은 매우 서정적이고 차분하다.

한갓진 서해의 작은 포구였던 왜목마을에 특별한 볼거리와 여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생겼다. 2018년 가로 9.5m, 너비 6.6m, 높이 30m의 해상조형물인 '새빛왜목'과 해변을 따라 산책로가 조성된 것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새빛왜목은 꿈을 향해 비상하는 왜가리의 모습을 표현했다. 외형은 수직 상승형 트러스 구조로 더욱 웅장하다. 게다가 스테인리스 스틸 판으로 주변 풍경이 고스란히 반사되어 시시각각 다양한 색과 분위기를 연출한다.



외래 문명에 개방적인 땅, '김대건 신부'를 배출하다

당진은 대표적인 내포로 알려져 있다. 내포(內浦)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바다가 육지 안으로 깊숙이 치고 들어온 지형을 뜻한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증환은 《택리지》에 '충청도에서 내포가 가장 좋다'라고 기록했다. 내포는 충청남도 서북쪽 지역을 가리킨다.

내포에는 물길과 함께 각종 신문물이 빠르게 유입됐다. 덕분에 이 지역 사람들은 외래 문명에 유독 개방적이었고, 점차 '천주교 신앙의 땅'으로 성장했다. 1784년 한국천주교가 창설되고 예산의 내포에서 첫 신자가 나온 이후, 조선 후기 엄혹한 박해를 받던 시절에도 충청도 내포에서 신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신자가 많은 만큼 순교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내포는 '순교자의 온상', '조선의 카타콤바'로 불렸다. 카타콤바는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무덤이자 박해의 피난처, 비밀교회를 뜻한다. 오늘날 이곳에 천주교 성지와 사적지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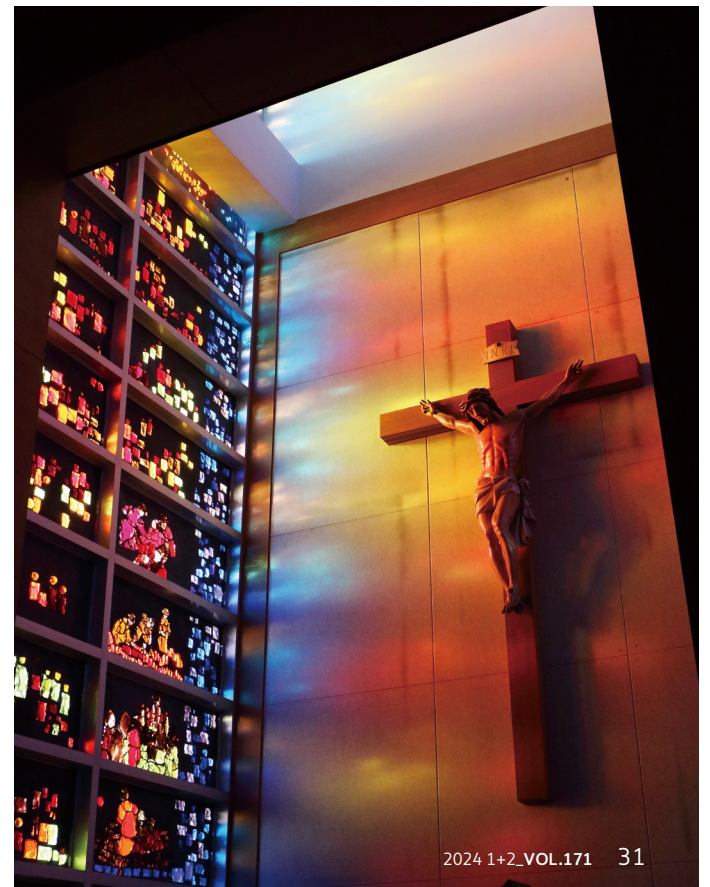
솔미성지(국가지정문화재)는 당진 우강면 송산리에 자리한다. '솔'은 우리말로 '작고 길다'는 뜻과 '소나무'라는 뜻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미'는 '산'을 말한다. 지금도 '작은 소나무 언덕' 솔미에는 자연부락인 솔미마을

이 있다. 이 마을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가 태어난 곳이며, 김 신부 아버지를 비롯해 4대에 걸친 순교자가 배출된 천주교 성지이다. 솔미성지는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았다. 김대건 신부는 조선인 최초로 서양 학문을 공부한 유학생 중 한 명이었다. 그는 15세에 1836년 모방 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선발돼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 마카오는 필리핀과 함께 동양 속의 서양으로 불릴 만큼 동양인들에게 이국적인 곳이었다. 김대건 신부는 그곳에서 유럽의 학문과 문화, 예술은 물론이고 프랑스 선교사들에게 언어와 철학, 신학, 음악, 세계 지리 등 다양한 학문을 배우며 세계관을 넓혀갔다. 그는 언어에도 탁월한 능력을 갖췄다고 한다. 라틴어를 비롯해 프랑스어, 중국어에 능통했으며 옥중에서 영어로 된 지도를 번역하기도 했다. 1845년 중국 상해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사제가 된 그는 조선에 입국해서 선교에 온 힘을 쏟다, 1846년 순교하던 해, 그의 나이 25세였다. 그가 사제로 활동한 기간은 비록 1년여에 불과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섬김의 발자취는 한국 천주교 신자들에게 큰 기둥이 됐다. 로마교황청은 김 신부를 1925년 복자, 1984년에 성인으로 선포했다. 2021년 유네스코는 김대건 신부를 '세계 기념 인물'로 확정했다.

순교미술관에 전시된 신리 기록화



솔미성지 대성당의 스테인드글라스



햇빛은 겨울에도 온기가 있는 솔뢰성지

솔뢰성지 입구를 지나 조붓한 산책로를 따라가면 십자가를 마주한다. 곧이어 반원형의 아레나에 십이사도상이 서 있다. 아레나는 로마의 검투사들이 싸우던 모래가 깔린 검투장이다. 솔뢰성지에 아레나가 조성된 이유는 김대건 신부가 새남터 모래사장에서 순교한 것을 기리고, 또한 십이사도가 복음을 전하다 고난 가운데 순교한 것처럼 김대건 신부 또한 순교를 불사하고 오직 믿음을 지켰다는 뜻을 담고 있다. 아레나에서 시선을 돌리면 높다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상과 함께 ‘십자가의 길’이 이어진다. ‘고난의 길’이라고도 부르는 이 길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임당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보여준다. 그러므로써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게 한다.

십자가의 길 주변에는 솔뢰라는 지역 이름에 걸맞게 소나무들이 하늘을 뒤덮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나무는 우리 민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나무다. 예부터 장수를 바라는 마음에 십장생을 그릴 때 소나무는 빠지지 않는 소재였으며, 사철 푸른 기상과 곧은 절개는 선비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으로 여겼다. 사계절 가운데 가장 햇빛은 겨울인 탓에 솔뢰성지도 쓸쓸하고 허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뾰뾰한 소나무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듯 2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소나무 숲 사이로 한복 차림에 갓을 쓴 김대건 신부 동상이 신앙을 고백하듯 한 손을 치켜들고 능글하게 서 있다. 동상 주변 소나무들이 마치 경배하듯 에워싸고 있어 예사롭지 않은 풍경을 자아낸다. 동상 앞에는 김대건 신부의 생가 유적이 복원되어 있다. ‘ㄱ’자 한옥 대청 마루에는 25세 청년 김대건 신부의 초상이 걸려 순례객을 반겨준다. 마당에는 2014년에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기도하는 모습이 조각상으로 제작되어 자리를 지킨다. 생명도 영혼도 없는 무생물이지만 이 작품에 작가의 영성이 깃든 까닭일까.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이 느껴진다.

지난 2021년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 지은 대성당으로 향한다. 대성당은 ‘기억과 희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김대건 신부를 비롯한 순교자의 신앙이 꽃처럼 피어나길 희망하는 마음에서 장미꽃 형상을 따라 지었다. 성당 내부는 강렬한 색감이 이채로운 스테인드글라스가 압도적이다. 김대건 신부 기념관 주위는 작은 연못이 둘러 있는데, 마치 김대건 신부 일행들이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오갔던 작은 배 라파엘호를 연상시킨다. 기념관 안에 들어서면 짧지만, 강렬했던 그의 생애를 엿볼 수 있다.

눈 내린 솔뢰성지는 호젓한 정취가 가득하다. 눈길을 밟으며 경내를 걷다 보면, 사뭇 마음이 차분해진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순교자의 조각상과 프란치스코 교황과 화동이 나란히 선 조각상이 눈밭에서 빛을 발한다.



아담한 크기로 지어진 합덕성당의 내부



신리성지 종탑과 순교자기념관



신리성지에는 순례객을 위한 숨터가 여럿 있다



드넓은 들녘에 자리한 합덕성당과 신리성지

솔피성지에서 가까운 곳에 합덕성당이 있다. 1929년에 세워진 이 성당은 주변보다 높은 언덕에 자리한다. 두 개의 종탑이 인상적인 이 성당은 고딕양식 건축물로 외장을 붉은 벽돌로 마감해 성당 특유의 중후한 멋이 돋보인다. 또한 정면의 아치형 창호들과 좌우 대칭으로 나란히 있는 2개의 종탑이 엄숙함을 더한다. 오랜 역사를 보여주듯 성당 옆에 자리한 한옥으로 지은 역사관도 이채롭다.

계단을 올라가면 인자한 얼굴의 예수상이 두 팔을 벌려 순례객을 반긴다. 그 뒤로 성당의 모습이 가까이 보이는데 1929년에 지었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 있다. 사실상 합덕성당의 역사는 성당 건축물보다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90년(고종 27년)에 예산군 고덕면 상곡리에 세워진 양촌성당으로 출발해 1899년 현재의 위치에 이전하면서 합덕성당으로 개명했다. 현재 성당은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세운 것이다.

성당 내부는 순백으로 덧칠해 정결한 신부를 보는 듯하다. 가장자리에 줄지어 선 기둥은 솔피성지에서 본 십이사도의 믿음을 보듯 굳건해 보인다. 정중앙에 자리한 제대 좌우의 스테인드글라스에서 영롱한 빛이 투과돼 성당 안을 한층 신비롭게 꾸며준다.

성당 뒷마당은 합덕제와 연결된다. 합덕제는 예당평야에 물을 대기 위해 조성한 저수지로 연꽃이 피는 여름에 챙겨볼 만하다. 합덕제에서 32번 지방도를 건너면 넓은 벌판에 십자가가 드높게 세워진 신리성지에 닿는다. 신리성지 주변은 지평선이 보일 만큼 탁 트인 들녘이다. 조선시대에는 삼포천을 통해 배가 드나들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반듯반듯한 논밭으로 개간됐다. 천주교 전파 당시 신리는 조선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신자촌이었다. 신인들은 비밀리에 입국한 선교사들을 도왔고 선교사들은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선교활동을 펼쳤다. 그러던 중 엄혹한 병인박해(1866년)가 이어졌고 외국인 신부와 신자들 모두가 체포돼 몰살당했다. 단일 마을로서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다.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1927년 지역 신자들이 모금을 통해 주교관과 순교 기념비를 세웠다. 신리성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이 순교자기념관이다. 기념관 꼭대기에는 두 팔을 벌려 세상을 안으려는 듯한 십자가가 세워져 있다. 죽음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빼닮아 마음이 숙연해진다. 건물 지하에는 순교미술관으로 꾸며 놓았다. 이곳에서 순교한 성인들의 영정과 신리 기록화 13점이 전시돼 있다.

당진을 여행하면서 죽음으로 지켜낸 신앙을 묵도한다. 힘들다, 어렵다고 입버릇처럼 내뱉는 말들이 그들이 겪었을 고초에 비하면 한낱 호강에 겨운 투정이라는 생각이 밀려온다. 내일도 마주할 일상의 작은 순간들이 행복이라는 점에서 내 삶의 전환점을 다시 확인한다. **KNF**



travel information

- ① **정보** 한국판 산티아고라 불리는 '버그내 순례길'은 솔피성지에서 버그내시장~합덕성당~합덕제~무명 순교자 묘역~신리성지~하흑공소를 잇는 17.5km 구간이다.
- ② **문의** 당진시 문화관광과 041-350-5391~3



프란치스코 교황이 김대건 신부 생각을 향하고 있다

저출산 해법으로 떠오른 ‘라떼 파파’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졌다.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약된 가운데 미혼 남녀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낮아진 데다 결혼을 한 젊은 부부들도 출산을 미루거나 기피하게 된 것이다. 육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이 더욱 심화되면서 아빠 육아가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남편과 아빠 역할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요즘 아빠 육아’의 면면을 들여다본다.

글. 김주희

아빠 육아 전성시대



N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ubbies



과거에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했던 반면 요즘 남편은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자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가치관 변화가 불러온 '일보다 가정, 육아는 공동'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내세우고, 기업 또한 남성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중이다. 무엇보다 육아 당사자인 부부들 사이에서 '육아는 엄마의 몫'이라는 고정적인 성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성별에 따라 나뉘지던 자녀 양육을 비롯한 가사 활동과 경제 활동이 이제는 성별 구분 없이 같은 영역으로 수렴되면서 공동 육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더불어 일보다 가정을 우선시하는 3040 밀레니얼 세대 남성 직장인이 늘어나면서 가정생활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는 중이다.

현대사회 소비 트렌드를 관측하는 서적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도 가정 안에서 변화된 남성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다. '요즘 남편·없던 아빠(Not Like Old Daddies, Millennial Hubbies)'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가정 속 새로운 남성의 모습을 조명한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생애 미혼율이 치솟는 가운데 기꺼이 '결혼할 결심'을 한 요즘 남편, 그리고 기성세대에게는 낯설기만 한 육아 마인드를 지닌 '없던 아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 과거에는 남편이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역할을 했던 반면 요즘 남편은 가사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자와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는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적 독립 현상이 더해지면서 아내는 일터로 남편은 가정으로 들어오게 됐다. 이로써 아내와 남편 모두 일과 가정을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로 거듭나고 있다.

육아의 바통터치, '6시 신데렐라 아빠'

남녀 공동 육아 문화가 확산되며 남성 육아휴직자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한 손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며 육아에 적극적인 아빠를 뜻하는 '라떼파파(Lattepapa)'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야근을 거부하고 칼퇴근하는 '6시 신데렐라 아빠'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이전 세대의 가부장적인 아빠들과 달리 자녀의 어린이집 등하교 시간은 물론 교육 과정, 반 이름, 친한 친구 이름을 파악하고 있다. 소아과 진료 일정과 예방접종일을 챙기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각종 육아 정보를 수집하기도 한다. 아빠가 놀아주는 방법이나 아이와 가기 좋은 낮은 산을 공유하거나 아빠가 육아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 등의 정보를 나눈다. 육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는다. 양육 외에도 청소와 요리와 같은 가사 노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살림꾼 면모를 발휘한다.

양육 친화적 업무 환경으로 남성 육아휴직 증가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아빠의 육아휴직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이 조성되는 중이다. 최근 몇 년 새 기업들은 직원들이 일과 육아를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남성 육아휴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는가 하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도 이용을 독려한다. 경제적인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 점을 반영해 기업 차원에서 통상임금을 보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도 한다.

실제로 이러한 기조는 긍정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13만 명 정도이며,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만 7,885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8.9%에 이른다. 2019년 21.2%, 2020년 24.5%, 2021년 26.3%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 손에 커피를 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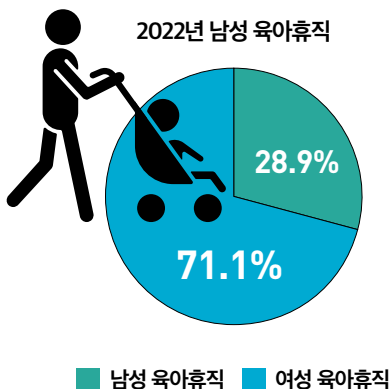
한 손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라떼파파(Lattepapa)'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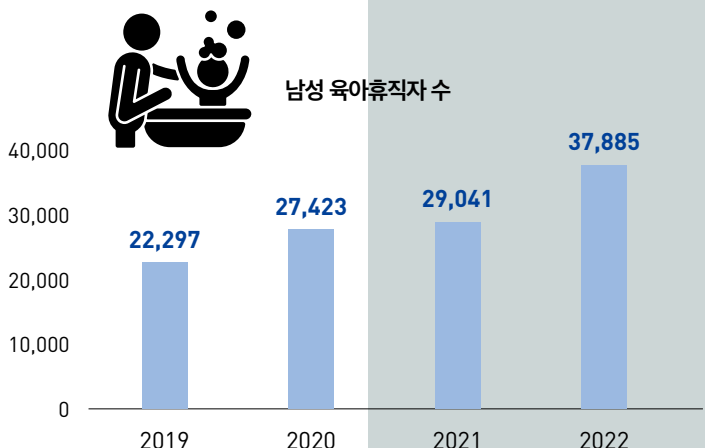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야근을 거부하는

'6시 신데렐라 아빠'의 증가



자료: 고용노동부(단위: %)



자료: 고용노동부(단위: 명)




남성 육아휴직의 부정적인 인식도 조금씩 열려지는 중이다. 사내 전반적인 분위기와 조직 문화가 변하면서 ‘육아휴직을 하면 매년 과장에 머문다’는 걱정과 커리어 손실 우려 역시 줄어들고 있는 것. 육아휴직 기간이 끝나고 복귀한 직원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 나갈 수 있는 업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 업무 경력을 보유한 핵심 인재의 외부 이탈을 막고 장기적으로 충성도 높은 고급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면에는 한계점도 드러난다. 아빠 육아휴직자가 30% 가까이 급증했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의 70.1%는 대기업에 소속돼 있다. 반면 4명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3.8%에 불과한데, 이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지목되고 있다.

아빠 육아를 위한 콘텐츠 제공, 유통업계도 주목

육아하는 아빠를 대상으로 한 콘텐츠도 많아지고 있다. 지자체 공공기관도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라떼파파를 위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보건소와 주민센터 등에서는 놀이 지도, 대화법, 행동 특성, 성 교육 등을 주제로 아빠 맞춤형 육아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테면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아빠가 주의해야 할 부분을 짚어주고, 캠핑장에서 아이와 놀아주는 법 등을 알려준다. 출판업계 또한 육아가 서툰 초보 아빠에게 특화된 육아지침서를 출간한다.

유통업계에서도 라떼파파를 사로잡기 위한 맞춤 제품을 내놓고 있다. 아빠들 사이에서 ‘육아는 장비빨’이라는 말이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편리한 육아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터. 기업들은 남성의 취향을 반영한 육아용품, 가전제품을 내놓고 있다. 디테일한 편의성은 물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남성의 가사 활동과 육아를 돕는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핑크 컬러가 아닌 네이비 컬러를 적용한 고무장갑이나 자동 분유 제조기, 캠핑장이나 낮은 산에서 끌고 다닐 수 있는 유모차 등을 볼 수 있다.

남성 육아휴직이 공동 육아의 보편화 그리고 저출산 극복이라는 건강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열쇠라는 데 다수가 의견을 모으고 있다. 정부와 기업의 지속적인 노력과 대중의 인식 변화 속에서 아빠 육아는 점차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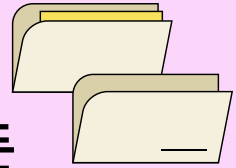
• 온 나라에 퍼진 세기말적 감성 •

1997년 외환 위기, 이른바 'IMF 사태'는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뤘다고 자부하던 시절 갑작스럽게 우리를 찾아왔다. 온 국민이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경제적 난관이었다. 이런 와중에 불어닥친 세기말 특유의 불안감과 절망적인 전망은 먹고사는 데만도 벅찼던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요동치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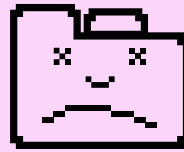
노스트라다무스가 한 예언서에 '1999년 7월, 하늘에서 공포의 대왕이 내려오리라'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는 이야기가 입소문과 인터넷을 타고 빠르게 퍼졌다. 대부분은 이를 믿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 예언에 대해 제법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시대적 심리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별을 슬퍼하고 다음 생애의 사랑을 기약하는 록 발라드가 연신 가요 차트 상위권을 차지했다. 당대 최고의 가수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3집 앨범에 수록된 '교실 이데아'의 일부분을 거꾸로 돌려 들으면 '나에게 피가 모자라'라는 말이 나온다는 허무맹랑한 소문도 10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이른바 '세기말적 감성'은 세기가 바뀌는 시기적 특성, 어려운 경제 상황, 뒤숭숭한 사회 분위기 등과 교묘하게 맞물리며 지역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그야말로 들불처럼 번져 나갔다.



세기말을 뒤흔든



'웃픈' 해프닝

새 천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1990년대 말, 전 세계는 유난히 떠들썩했다. 신세기의 설렘과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던 반면, 온갖 세기말적 종말론과 컴퓨터 오류에 대한 우려로 불안과 절망에 빠진 이들도 더러 있었다. 돌이켜 보면 사실 별것도 아닌 일에 웃고 울었던, '웃픈' 해프닝의 시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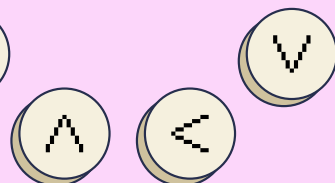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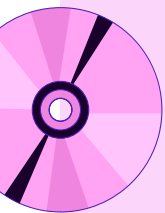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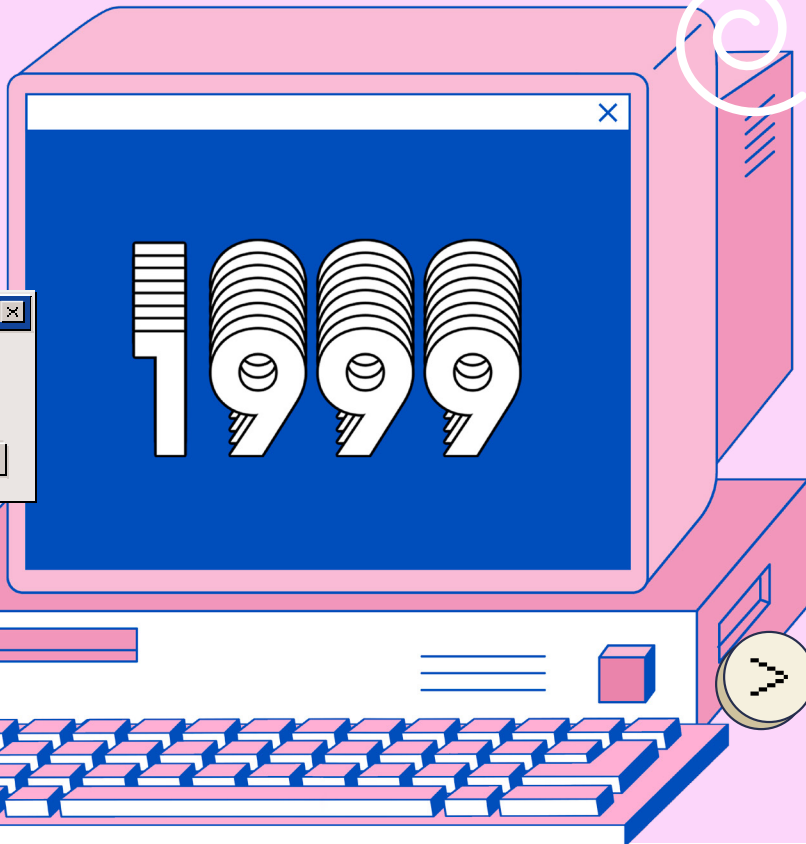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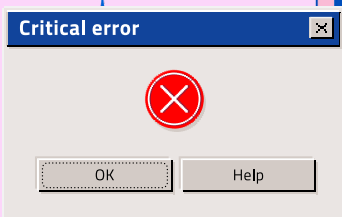
글 강진우 문화칼럼니스트



무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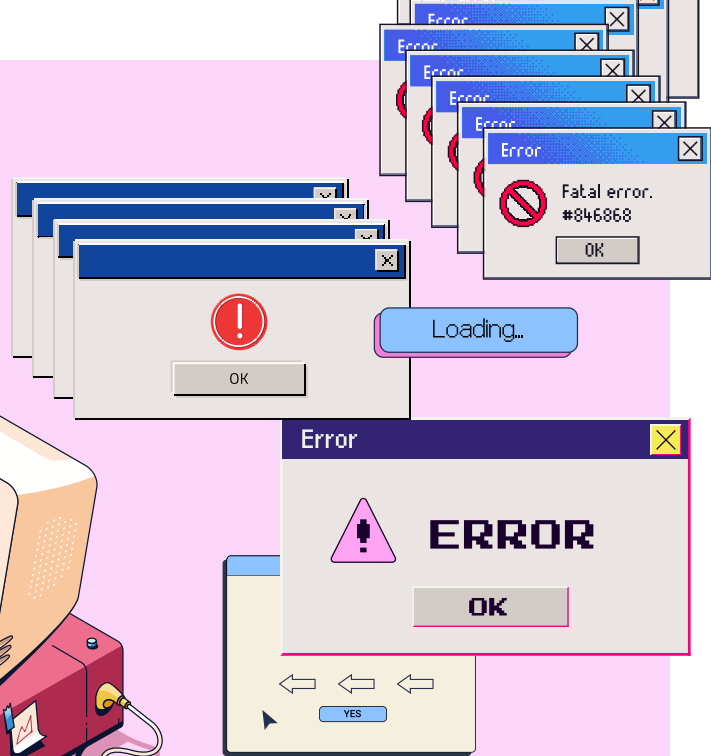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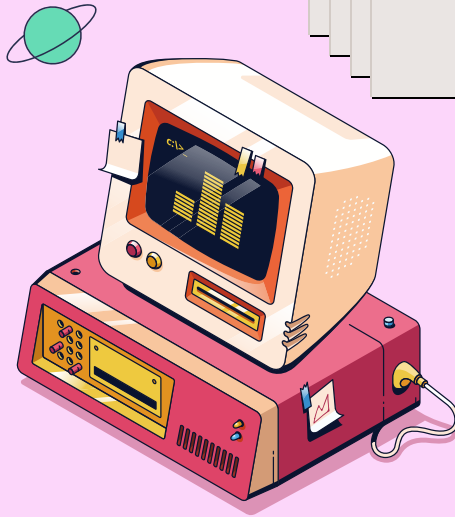
DOWNLOADING...



1997년 외환위기

노스트라다무스의 종말론

Y2K 사태



• 전 세계를 집어삼킨 키워드, Y2K •

막연한 불안감을 조장하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달리, 'Y2K'는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실제적 충격을 전 세계에 선사했다. 컴퓨터가 한창 개발되던 1960년대, 개발자들은 가뜩이나 부족한 메모리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도의 앞 두 자리, 즉 '19'는 기본값으로 놓고 뒷 두 자리만 저장하도록 컴퓨터를 설계했다. 예를 들어 1963년을 저장해야 한다면 '63'만 저장하도록 한 것. 이러한 방식은 수십 년간 별문제가 없었지만, 2000년이 다가오자 얘기가 달라졌다. 2000년 1월 1일이 됐을 때 컴퓨터가 연도를 2000년이 아닌 1900년으로 인식해 전산 시스템에 치명적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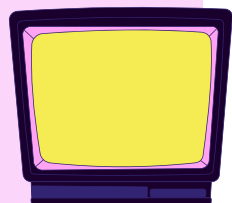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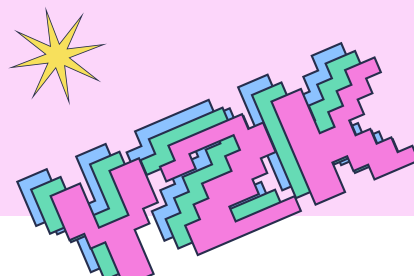
이에 각국 정부는 2000년을 불과 3~4년 앞둔 시점부터 부랴부랴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우리나라도 1998년 범정부 차원의 대책반을 구성, 연도를 두 자리로 저장하는 모든 컴퓨터를 네 자리 저장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때 우리나라 정부가 Y2K 문제 해결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조 1천억 원에 이른다.

미디어가 Y2K 문제를 연일 조명하자, 국민 상당수도 동요했다. 1999년 12월에 접어들면서 많은 이들이 은행 전산망 마비에 대비해 제각각 꽤 많은 현금을 인출했다. 대형마트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고, 유통업계는 다양한 생필품을 고루 담은 Y2K 비상용품 세트'를 판매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 2000년 1월 1일 0시를 넘은 뒤에도 우리의 일상은 어제와 다름없이 평온하게 움직였다. 세기말을 둘러싼 모든 우려가 헛된 걱정으로 돌변한, 다행이면서도 뒷맛이 씁쓸한 순간이었다.

• 걱정을 넘어서면 보이는 밝은 미래 •

당시의 분위기가 워낙 요묘했기 때문일까. 매년 연말연시가 되면 으레 한 번쯤 떠들썩했던 1990년대 말의 기억이 새록새록 피어난다. 그런데 최근 당시의 분위기를 더욱 자주 곱씹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최근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2020년부터 3년여간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경기 불황과 급등하는 물가, 미·중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등 상당 기간 지속된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사람들의 불안감을 자극하고, 그 불안감이 새 천년 무렵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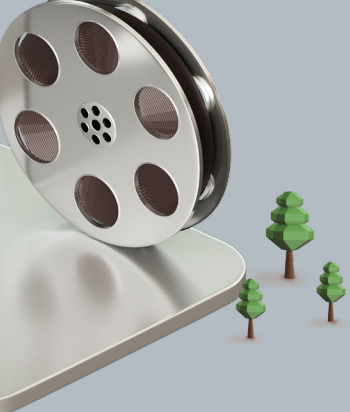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다. 우리가 심하게 받아들였던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과 Y2K는 기우에 불과했다는 점이다. 2000년이 도래한 이후에도 전 세계는 성장과 발전을 거듭했고, 그 사이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20세기 말의 걱정과 우려 중 실현된 것은 거의 없으며, 우리는 매 순간 부딪쳐 오는 난관을 어떻게든 이겨 내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그 경험을 통해 쌓은 지혜와 노하우가 존재하기에, 우리는 앞으로도 충분히 이겨내는 일상을 보낼 것이다. 괜한 걱정을 머릿속에서 덜어내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더욱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새해를 맞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자세가 아닐까. KNF



살맛나는 KNF

+

문화의 발견



새로운 시선 새로운 마음이 필요한 때

갑진년 맞이 용을 찾아라



2024년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를 맞아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에는 용과 관련한 전시품 15건이 소개된다. 초현실적 존재인 용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 왕실에서는 제왕의 상징으로, 불교에서는 불법 또는 국가의 수호자로 인식되었으며 민간에서는 물을 다스리고 재앙을 물리치며 오복(五福)을 가져오는 신령스러운 동물로 여겨졌다. 다양한 형상과 상징을 가진 용을 만나며 그 안에 담긴 재미있는 이야기도 함께 살펴볼길 바란다.

전시

EXHIBITION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선사고대관, 중근세관, 서화관, 조각공예관)



기간: 2023. 12. 20.~2024. 4. 7.



티켓: 무료



The Kandle 더 캔들



1,000개의 촛불이 만드는 신비로운 분위기 속에서 펼쳐지는 음악 공연. 매월 다양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연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주자도, 청중도 소수로 구성되고, 대중에게 친숙한 곡들이 연주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또한 촛불이 조성하는 따뜻한 분위기 덕분에 음악에 한껏 몰입하는 경험도 가능하다. 클래식은 어렵지만 음악 공연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The Kandle이 선사하는 공연을 찾아가 보자.

공연

SHOW



공연 정보(장소 및 일정): linktr.ee/thekandleofficial
*공연 장소 및 일정이 매월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참고



티켓: 35,000~60,000원 * 지역별, 좌석별 상이





신년에는 어쩐지 새로운 것을 탐구하고,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또는 미뤄온 것을 실천해 보고 싶은 욕구가 꿈틀거린다. 마음이 열리고 기대감에 부풀어 오르는 연초,
생각지 못한 가능성의 문을 두드리 줄 문화 콘텐츠를 소개한다.

정리. 편집실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1937년에 출판돼 100년 가까이 꾸준히 사랑받아 온 인생론의 고전으로 지난해 개봉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동명 영화의 원작이다. 책은 주인공인 중학교 2학년 코페르에게 문득 찾아온 삶과 세상을 향한 근본적인 물음에 외삼촌이 철학·종교·과학·경제학을 아우르며 대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한 해의 계획은 물론 삶의 향로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 이 책을 읽으며 '가치 있는 삶' 또는 책 제목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사색해 보면 어떨까.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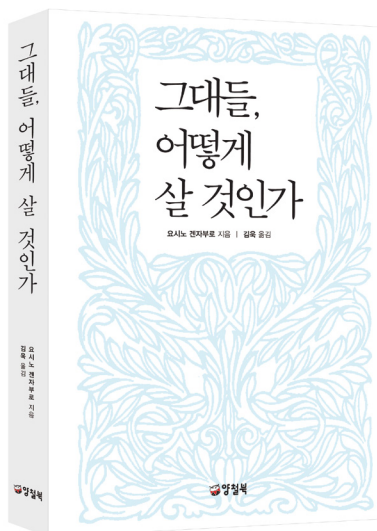
BOOK



출판사: 양철북



저자: 요시노 겐자부로



영화



동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의 프리퀄(prequel, 전편보다 시간상 앞선 이야기를 보여주는 속편) 작품으로, 서브 주인공인 윌리 왕카의 과거사를 다룬 영화다. 소년 '왕카'는 디저트의 성지 '달콤 백화점'에 자신만의 초콜릿 가게를 열고 싶어 한다. 가진 것이라고 단돈 12소버린뿐이지만 특별한 마법의 초콜릿으로 사람들을 사로잡을 자신이 있던 것. 그러나 주위의 계략과 견제 등에 휘말려 쉽지 않은데... 달콤한 꿈에서 출발한 환상적인 여정에 함께해 보자.

영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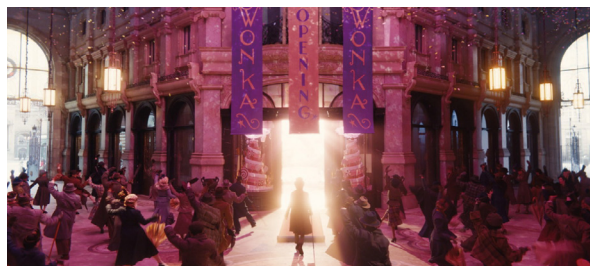
MOVIE



감독: 폴 킹



출연: 티모시 샬라메, 칼라레인, 올리비아 콜맨, 휴 그랜트, 샬리 호킨스 등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필생의 가르침

『하워드의 선물』

김현숙 차장은 사내 자료실 애용자이자 애독자다. 『하워드의 선물』도 자료실에서 우연히 만났다. 책을 읽으며 ‘어쩌면 지금이 삶을 되돌아봐야 할 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다. 전환점이란 다른 길로 가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과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하니. 그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만족스럽게 살아가기 위해 잠시 멈춰 삶을 점검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기로 했다.

Voice. 인사노무처 김현숙 차장



‘문학의 속삭임’은 신청을 통해 우리 임직원 중 한 분을 선정해, 직접 추천하고 싶은 책 한 권을 골라 인상 깊었던 구절을 읽어주는 코너입니다. 큐알코드 스캔 후 연동되는 페이지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 이번 호에 선정된 김현숙 차장님이 읽어주는 『하워드의 선물』의 일부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하워드의 선물』 •



이 책은 심장마비로 쓰러졌다가 기적적으로 깨어난 하워드 경영대학원 교수 하워드 스티븐슨과 그를 인생의 또 다른 아버지로 여겼던 제자 에릭 시노웨이가 수년간 나눈 대화를 엮은 것이다. 두 사람은 주변인들의 고민이나 어려움, 삶의 본질을 꿰뚫는 주제들에 대해 문답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지혜와 용기를 나눈다.

• 김현숙 차장의 추천사 •



책 첫머리에 ‘인생이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가는 길’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이름의 돌을 던질 때 그 돌은 가라앉지만 거기서 생긴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우리의 선택이 크고 작은 물보라를 일으켜, 소중한 것을 향해 천천히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책을 공유합니다.

- ① -

하워드느 잠시 말을 멈추고는 누군가 머리맡에 올려놓은 싱싱한 사과를 집어들었다. 그러고는 내게 건네주며 반으로 잘라달라는 시늉을 했다. 나는 사과를 반으로 똑 잘라 하워드에게 한 쪽을 내밀었다. 그는 마치 생전 처음 보는 양 사과 속의 씨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말했다.

“정말 신비롭지?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씨앗 속에 사과나무가 될 잠재력이 들어 있잖아. 전환점도 마찬가지야. 그 속에는 우리의 숨은 능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적 동기부여 에너지’가 들어 있어. 물론 그것이 전환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테지. 그러니까 전환점이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 보라’는 일종의 신호인 셈이야.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마법과도 같은 선물이지.”

- ② -

“물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해.”

그는 필생의 일을 추구하는 동안 물보라뿐만 아니라 물결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죠?”

그러자 하워드느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더니 바다 위로 던지며 말했다.

“물 위에 돌을 던지면 거품처럼 물보라를 일으키며 금세 가라앉지.

하지만 돌이 떨어진 곳에서 생긴 물결은 사방으로 점점 멀리 퍼지잖아.

우리도 매일매일 ‘선택’이라는 이름의 돌을 던지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날마다 크고 작은 물보라를 일으키면서.”

하워드느 우리의 선택으로 생긴 물결이 어디로, 얼마나 퍼져나갈지를 예상하고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넓고 길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일으킨 물결과 주변 사람들이 일으킨 물결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물보라뿐만 아니라 물결에 대한 계획을 세워라!’



#새해다짐



이★숙(2413)

- 새** 해 계획은 제대로!
- 해** 보자는 의지는 최고로!
- 다** 지나간 날의 후회는 제로로!
- 짐** (부담)보다 희망을 싣고 2024년 새해로!



이★건(3822)

- 새** 벽이 밝아온다
- 해** 가뜨려나 보다
- 다** 잘될 거야
- 짐** 은 내려놔



김★영(1605)

- 새** 해가 되면
- 해** 마다
- 다** 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 짐** 은 내다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파이팅!



김★미(6381)

- 새** 해에는
- 해** 돌이 보러가서
- 다** 짐을 하고 내년에는
- 짐** 이 되지 않는 내 스스로의 삶을 잘 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박★화(1273)

- 새** 해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호인 <원자력연료>를 보노라니 감회가 새롭네요
- 해** 처럼 온 누리를 밝히는 빛을 보며 새해의 희망을 다짐해 봅니다
- 다** 짐이 다짐으로만 끝난다면, 너무 아쉽지 않겠는가
- 짐** 이 되는 사람이 되기보다 짐을 나누어지는 사람이 되어겠다고!



표★숙(8033)

- 새** 해 2024년 금연, 작심삼일 하지 않겠습니다.
- 해** 를 보며 가족과 꼭 약속하겠습니다
- 다** 짐하고 또 다짐하겠습니다. 금연 성공해
- 짐**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모습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윤(7773)

- 새** 해다
- 해** 맞이 보러
- 다** 같이
- 짐** 써서 해보러 가요



이★희(0262)

- 새** 것도
- 해** 지면 쓰레기다
- 다** 버리고
- 짐** 을 줄이자



이★희(0262)

- 새** 해에는
- 해** 비한 바다에서
- 다** 시 슬람해지도록
- 짐** (gym)에서 운동해야지



이★종(6713)

- 새** 로운 한 해가 떠오른다
- 해** 마다 새로운 다짐을 했으나 이루지 못한 다짐이 많다
- 다** 이루지 못했던 목표는 다짐 모두 갑진년에는
- 짐** 살라빔, 다 이루어져라





김★영(0506)

“올해 한 일들이 아주 거창해야 잘 보냈다고 할 수 있나?”

가족 중 누가 승진을 했다거나, 어려운 취업의 관문을 뚫었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도 그냥 건강하게만 보냈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쩐지 이상하다. 특출하게 무언가를 잘하지를 못하니 보통으로 사는 것을 낙으로 살아서인지 방송에서 거창한 일을 해내어 상을 받는 것을 보거나 누가 올해 어떻게 보냈느냐고 색다른 대답을 원할 때는 조금 어색하다. 나만 이상한가?

그래서 돌아오는 새해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계획을 세워보려고 한다.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따서 취업에 도전해 해볼까 하는데 그동안 내가 한 음식들이 맛있다고 한 이들이 있어 용기를 얻었다. 불씨가 피어오를 때 이런저런 계획을 다 세웠다. 처음부터 잘하지는 못하겠지만 한 해 동안 열심히 한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이 돼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하니까!



#2024



최★준(1513)

2024년 새해에는 부모님과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직 제주도를 한 번도 못 가보신 부모님께 한라산, 올레길, 마라도 등 제주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소개해 드리고, 현지인 처럼 살며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고 오고 싶습니다. 꼭 2024년 버킷리스트 '부모님과 제주도 한 달 살기'를 실천해 보겠습니다



한★윤(7773)

- 2 024년
- 0 순위로 희망해 본다
- 2 % 연봉 상승이 아닌
- 4 0% 상승을!!



이★중(6713)

- 2 령게 분에 넘치는 인연을 만나게 돼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 0 공연하게 혹은 장난스레 말하던 감사는 언제나 진심이었습니다
- 2 저는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고 나누고 싶습니다
- 4 시사철 언제나 그대의 곁에서 웃고 울며 함께하는 갑진년이 됐으면 합니다



#용띠

한★윤(7773)

- 용 띠에 태어난
- 띠 동갑 모두 건강하세요!



지★민(2867)

- 용 띠를 거꾸로 하면
- 띠 용~~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 독자 후기 •

우리 회사 안전보건 교육체계를 관심 갖고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많은 기업이 안전보건 관리 강화에 관심이 있지만 생산현장, 건설현장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무하는 내내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상시적 노력과 함께 사전 예방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에 보다 주안을 둔 점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 김★현(1674)

이번 호 주제인 '감사'라는 단어를 보며 부모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 장★익(3944)

'2023년과 멋지게 이별하려면' 꼭 저를 위해 특별하게 써주신 맞춤 기사 같았어요. 올 한 해를 의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는 7가지를 요약해 주셨는데 그중 '관계의 옥석 가리기'가 가장 도움이 됐네요. 의견 차로 소원해진 관계 회복은 연말연시 프리미엄으로 다른 때보다 수월하게 회복 가능하다니 용기내어 꼭 해보겠어요.

- 정★근(9416)

• 11·12월호 스토쿠 문제&정답 •

	5		3	1	4		6	
8	7				9	4		3
6	4	3	5		7	1	9	2
		7	8		5	2	1	
4	1		9					
	2	5		6	1	9		7
7	9		2	5		8	4	
		4		9	6			5
	3		1		8	6	7	

2	5	9	3	1	4	7	6	8
8	7	1	6	2	9	4	5	3
6	4	3	5	8	7	1	9	2
9	6	7	8	3	5	2	1	4
4	1	8	9	7	2	5	3	6
3	2	5	4	6	1	9	8	7
7	9	6	2	5	3	8	4	1
1	8	4	7	9	6	3	2	5
5	3	2	1	4	8	6	7	9

• 11·12월호 스토쿠 당첨자 •

- | | | | | | |
|-----------|-----------|-----------|-----------|-----------|-----------|
| 강★구(6916) | 김★미(2913) | 박★우(1097) | 오★희(6345) | 이★홍(2690) | 지★석(1263) |
| 강★경(8033) | 김★영(1605) | 박★진(9763) | 우★탁(6958) | 이★건(3822) | 최★석(9852) |
| 강★규(7604) | 김★미(6381) | 박★영(0014) | 이★연(8928) | 임★아(4279) | 최★선(6858) |
| 고★주(6090) | 김★연(2410) | 박★수(7655) | 이★중(6713) | 장★현(2953) | 한★윤(7773) |
| 권★아(1640) | 김★욱(1834) | 배★리(2772) | 이★희(0262) | 전★홍(4618) | 홍★리(2320) |
| 권★오(9873) | 김★준(4056) | 봉★호(8077) | 이★지(0448) | 정★람(1725) | |
| 권★영(6577) | 노★애(6036) | 송★희(1754) | 이★숙(2413) | 정★결(0246) | |
| 김★태(8311) | 박★현(0927) | 양★은(6424) | 이★은(2788) | 정★진(9275) | |
| 김★학(5425) | 박★선(0116) | 염★진(8533) | 이★민(3803) | 주★영(8230) | |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 📅 응모 기간 상시 모집
- 📄 당첨자 선물 1만원 커피 상품권
- @ 보내실 곳 편집실(songji@knfc.co.kr)
- ▶ 원고를 보내주실 때 이름과 연락처를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격월로 발행하고 있는 <원자력연료>에서 독자 여러분의 행복한 일상이 담긴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주제로 여러분의 따스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원자력연료>와 함께하는 독자 이벤트

<원자력연료>는 사내 문화와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해 격월로 발행되고 있는 소식지입니다.

소통 증진을 위해 독자 이벤트를 마련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① 해시태그 이벤트

KNF매거진 <원자력연료> 독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
주제어로 지어본 N행시, 주제어 관련 사진과 사연을
편집실(songji@knfc.co.kr)로 보내 주세요.

3+4월호 주제어

#봄마중, #벚꽃, #새싹

② 두뇌 운동에 좋은 SUDOKU 게임

스도쿠는 가로 9칸, 세로 9칸으로 구성된 표에 1~9의 숫자를 채우는 게임입니다.

문제를 풀었다면 **완성한 결과지를 사진 찍어 편집실(songji@knfc.co.kr)로 보내 주세요.**



- 🕒 마감 기한 2024년 3월 11일까지
- 🎁 당첨자 선물 1만원 커피 상품권
- 📢 당첨자 발표 3+4월호 독자마당 페이지
- 📍 보내실 곳 편집실(songji@knfc.co.kr)

※ 응모하실 때는 이름과 연락처를 꼭 기재해 주세요.

3	8				1			4
		2	6				7	
			4	8	7			3
				4		2	3	9
2		1				4		6
4	9	5		6				
6			8	5	4			
	7				6	8		
8			7				9	2

Turning Point

인생의 전환점을 찾다

다가오는 변화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맞을 수 있기를,
어떠한 변화라 할지라도 나만의 전환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로이드용



iOS용

QR코드를 스캔하면
<원자력연료>를 모바일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